

<슈부>(שוּבוּ) vs <슈바>(שוּבָּה)

-시편 90편의 주석과 이해-1)

하경택*

1. 들어가는 말

왕대일 교수가 남긴 연구 성과물은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한 권을 꼽으라면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이라고 말하고 싶다.²⁾ 여기에는 그의 연구방법론에서부터 그의 구약신학에 이르기까지 왕대일 교수가 수행하는 성경연구의 총체가 드러나 있다. 이 책은 그의 학문 여정에 대한 ‘창(窓)’이 된다.³⁾ 왕대일 교수의 언어는 시다. 그는 우리말의 특징을 살려 맛을 내고 한껏 멋을 부린다. 그는 ‘신학’(神學)을 ‘시학’(詩學)으로 한다.⁴⁾ 몇 문장만 인용해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시편을 “문(文)에서 문(門)을 여는 책”이며, “‘토라’라는 길에서 ‘토다’(찬양, 감사)의 문을 여는 책”이라고 말한다.⁵⁾ 우리말과 히브리말의 특징을 살려 짧은 표현으로 시편의 생김새와 쓰임새를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다. 또한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 1) 이 논문은 2019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2)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 구약사상문고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3) 그가 추구하는 성경해석학은 다음 책에 잘 드러나 있다. 왕대일,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4) ‘시’(poem)란 헬라어 ‘포이에오’(ποιέω)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문자 그대로 ‘예술적인 창조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W. P. Brown, 『시편』, 하경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0.
- 5)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 15.

그는 시편을 “말꽃”이라고 평가하며, “말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향기와 빛깔을 잘 살펴야 하고 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면한다.⁶⁾ 그리고 시의 “생김새”나 “짜임새”에 대한 관찰은 그 “쓰임새”에 대한 연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며, 다섯 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매무새”를 살펴야 시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⁷⁾

이러한 왕대일 교수의 통찰과 권면은 시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이 시편을 기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⁸⁾ 왜냐하면 시편이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대일 교수의 시편 읽기를 바탕으로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편이 ‘모세의 기도’로 소개되어 있는 시편 90편이다. 이제부터 왕대일 교수의 가르침을 따라 시편 90편을 읽어보도록 하자.

2. 시편 90편의 생성에 관한 견해들

시편 90편의 생성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들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시편 90편의 두 단계 저작설을 주장한 궁켈(H. Gunkel)의 입장이다.⁹⁾ 궁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1-12절의 내용이 후대의 확장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편 90편의 생성과정을 두 부분의 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했다. 즉, 1-12절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주제 아래 고찰될 수 있는 반면, 13-17절은 “야훼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 아래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 21.

7)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 49-66.

8)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 28-33. 김정우도 시편 90편을 주석하면서 “신학은 기도이다”라는 칼 바르트의 말을 인용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30쪽 각주 6번.

9)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precht, 1968), 397-399.

두 번째로 시편 90편의 지혜문학적인 특성을 강조한 폰라트(G. von Rad)의 입장이다.¹⁰⁾ 그는 시편 90편이 역사의 부재 현상과 함께 전도서와 동일한 지적·신학적 상황에 생겨난 시편이라고 평가했다. 인생을 ‘수고’(10절: עָמַל, <아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도 선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쉽게 사라지는 인생을 풀에 비유한 것은 잠언(잠 8:22-31)이나 욥기(14:1-2)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세 번째로 고대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의 시편 90편을 완성했다는 크라우스(H. J. Kraus)의 입장이다.¹¹⁾ 크라우스는 궁궐의 입장을 반박하면서도 그가 분석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미하여 수용한다. 최종형태의 시편 90편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시편으로 받아들이지만, 시편 90편의 저작과정에서 활용된 1-12절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시편 90편의 생성에 관한 견해들은 시편 90편의 장르분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반부(1-12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혜문학적 요소들과 후반부(13-17절)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탄원시의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혜시’나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할 수 있고, 두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합시’로 분류할 수도 있다.

10) G. von Rad, *God at Work in Israel*, trans. by J. H. Marks (Nashville: Abingdon, 1980), 219-221. 이 외에도 지혜문학적 특징을 강조한 사람들이 여럿 있다. K. Seybold, *Die Psalmen*, HAT I/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356-357; C.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Zürich: Pan, 2000), 137-200.

11) H. J. Kraus, *Psalmen 64-150*,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629.

3. 본문주석

3.1. 시역

-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יְיָ), 당신은 대대로 우리에게 거처(יְיָ)¹²)가 되었습니다.
- 2절 산들이 생기기 전과 당신이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 3절 당신은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וָשׁוּב). 사람의 아들들이”
- 4절 참으로 당신의 눈에는 천 년이 지나가는 어제의 하루와 같고,
밤의 한 경점(更點)과 같습니다.
- 5절 당신은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니,¹³)
그들은 잠자는 것(נָשָׁם) 같고,
아침에 돌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 6절 그것은 아침에 꽃을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마릅니다.
- 7절 참으로 우리가 당신의 분노 안에서(בְּאַפְּךָ) 종말을 맞이하며,
우리가 당신의 진노 안에서(בְּאַרְצֻתְךָ) 놀랍니다.

12) 70인경은 이 낱말을 ‘피난처’(καταφυγή)로 번역한다. 그러나 ‘피난처’(Zuflucht)에 해당 하는 히브리 낱말은 <마하세> (מַחֲסֵה)이다. 시편에서는 자주 하나님께서 ‘피난처’라는 사실이 고백된다(시 14:6; 46:2; 61:4; 62:9; 71:7; 73:28; 91:2, 9; 142:6 등). 따라서 여기에는 시편 전반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난처’보다는 ‘거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 해설을 보라.

13) ‘홍수로 쓸어가다’로 번역한 <자람> (צָרַח) 동사는 용례가 많지 않고 구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번역과 이해가 시도되었다. 크라우스는 돔(B. Duhm)이나 키텔(R. Kittel)의 본문비평을 따라 ‘씨를 뿌리다’는 의미의 <자라> (צָרַח) 동사로 고쳐 읽는다(H. J. Kraus, BK, 628). 하지만 <자람> (צָרַח) 동사가 ‘구름이 비를 쏟아 붓다’(시 77:18)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랍어와 비교하면 ‘끝나다, 중단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가다’로 이해하는 것이 어원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이 시편의 분위기에도 잘 어울린다.

- 8절 당신은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 앞에 두셨으며,
 우리의 숨겨진 것들을 당신의 얼굴빛에 두셨습니다.
- 9절 참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노여움 가운데(בְּעִבְרֹתָי) 사라지며,
 우리는 우리의 해들을 한숨(הִנָּה)처럼 보냅니다.
- 10절 우리 해의 날들은 칠십이고,
 강건하면 팔십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자랑은 수고와 고통(עָמֹל וְאָוֶן)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가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갑니다.
- 11절 누가 당신의 분노(אַפָּ)의 능력을 알며,
 당신에 대한 경외처럼(כִּירְאָתָךְ) 당신의 노여움(עִבְרֹתָי)을 (알겠습니까?)
- 1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 13절 돌이키소서(שׁוּבוּה). 아훼여,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의 종들(עֲבָדֶיךָ)에 관하여 뜻을 돌이키소서(הִנָּה).
- 14절 아침에 당신의 인자하심(רַחֲמֶיךָ)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소서(שִׂבְעֵנוּ).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 15절 당신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로 기뻐하게 하소서(שִׂמְחֵנוּ).
 우리가 나쁜 것(רָעָה)을 보았던 연수대로.
- 16절 당신의 종들(עֲבָדֶיךָ)에게 당신의 일(פְּעֻלָּתְךָ)을 보이소서.
 당신의 영광(קְדֻכָּךְ)을 그들의 자손들(בְּנֵיהֶם)에게.
- 17절 주 우리 하나님(יְיָ אֱלֹהֵינוּ)의 이름다움(נֵעַם)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 손으로 한 일(מַעֲשֵׂה יְדֵינוּ)¹⁴을 우리를 위해 굳게 세워 주소서(כֹּונֶה).
 우리 손으로 한 일 그것을 굳게 세워 주소서.

14) 직역하면, ‘우리 손들의 일’이다.

3.2. 구조와 양식

시편 90편을 크게 나누면 “탄식”(1-10/11절)과 “청원”(12/13-17)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¹⁵⁾ 하지만 시편 90편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단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⁶⁾ 1) 1-2절: 부름과 고백, 2) 3-10절: 곤경모사가 있는 탄식, 3) 11-16절: 하나님의 개입 요청, 4) 17절: 구원에 대한 전망. 쟁어(E. Zenger)는 시편 90편이 부름에 이어서 곤경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개입 요청이 나타나고 구원 넘치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끝나는 전형적인 탄원시적 구조와 요소들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¹⁷⁾ 또한 그는 이러한 구조분석을 토대로 시편 90편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한다.¹⁸⁾

첫째는 시편 90편이 서두와 종결의 감싸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⁹⁾ 시편 90편은 찬송시적-제의적 고백으로서 시편을 시작하는 부름(1-2절)과 2인칭에서 유일하게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제의적인 축도형식 구’(17절)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상응하게 1절의 <마온>(מַאֲוֹן)과 17절의 <노암>(נוֹאֲם)이 음성학적으로 서로 대응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는 중심부(11-12절)인데 이 단락은 이중적인 수사학적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 혹은 그것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단락은 시편 90편의 전환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이 시편의 ‘돌쩌귀’로서 이 시편의 ‘정점’을 이룬다고 평가한다.²⁰⁾ 11-12절에 사용된 ‘분노’와 ‘노여움’이란 표현이 7절과 9절에 나타나

15) T. Krüger, “Psalm 90 und die ‘Vergänglichkeit des Menschen,’” *Biblica* 75:2 (1994), 204.

16) F. L. Hossfeld/E. Zenger,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Herder, 2000), 605-607.

17) F. L. Hossfeld/E. Zenger, *HThKAT*, 604.

18) F. L. Hossfeld/E. Zenger, *HThKAT*, 605-607.

19) F. L. Hossfeld/E. Zenger, *HThKAT*, 605-606.

20) F. L. Hossfeld/E. Zenger, *HThKAT*, 606.

고, ‘우리의 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편으로는 9-10절과 다른 한편으로는 14-15절과 연결된다. 셋째는 시편 90편의 양 날개로서 3-10절과 13-16절의 내용을 분석한다.²¹⁾ 3-10절은 ‘당산-그들’(Du-Sie)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3-6절과 ‘우리-당신’(Wir-Du) 구조를 가지고 있는 7-10절로 나누어진다. 전자에는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무상성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고, 후자에는 ‘기도자를 멸망시키는 진노 때문에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13-16절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3-14절과 15-16절이 대칭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바깥 테두리를 구성하는 13절과 16절은 자신의 ‘종들’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고, 안쪽 테두리에 해당하는 14-15절은 ‘기뻐하다’는 동사와 ‘날들’이라는 명사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쟁어의 분석은 시편 90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과 어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17절을 ‘구원에 대한 전망’으로 분석하였는데, 어법상으로는 여전히 기원문으로서 ‘청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청원’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필자는 시편 90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절전반절	표제어
1절후반절-2절	부름과 고백
3-10절	탄식 탄식 1: ‘잠’이나 ‘꿀’과 같이 사라지는 ‘인간’에 대한 탄식(3-6절) 탄식 2: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라지는 ‘우리’에 대한 탄식(7-10절)
11-17절	청원 청원 1: 지혜의 마음 얻게 하소서 (11-12절) 청원 2: 돌이키소서 (13절) 청원 3: 기쁨의 날들을 주소서 (14-16절) 청원 4: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굳게 세우소서 (17절)

21)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6-607.

이러한 분석은 시편 90편을 탄원시로 볼 수 있게 한다. 탄원시의 네 가지 주요요소들(부름, 고백, 탄식, 청원)이 모두 들어 있다. 탄원시 가운데서도 시편 90편 전반에 걸쳐 ‘우리’가 주어로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된다. 하지만 시편 90편의 표제어에 등장하는 ‘기도’(תְּפִלָּה, <테필라>)의 의미를 살린다면 ‘공동체 기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3.3. 본문해설

3.3.1. 표제어

시편 90편의 표제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우선 모세가 시편의 표제어 등장하는 것은 시편 90편이 유일하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명칭은 구약성경에서 예언자직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다.²²⁾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야훼의 종’이라는 명칭과 동일시될 수 있다. 실제로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을 가리켜 ‘종들’이라고 부른다(13, 16절). 또한 ‘기도’라는 표제어도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시편에서 기도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은 세 편뿐이다(90편 외에 86편과 102편). 이러한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갖는 의미는 시편 90편 해석을 위해 중요하다.

먼저 시편 90편은 ‘기도’라는 명칭과 ‘모세’라는 인명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통해 오경의 다양한 본문들과 연결점을 갖는다. 모세는 오경에서

22) 이 명칭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세(신 33:1; 수 14:6; 시 90:1)와 사무엘(삼상 9:6이하), 엘리야(왕상 17:18, 24; 왕하 1:9이하), 엘리사(왕하 4:7이하 등 여러 곳)에게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예언자들(왕상 13:1이하; 왕상 20:28; 대하 25:7이하)에게 적용되었다. 하경택, “구약성서의 ‘예언자’를 통해서 본 ‘설교자’의 모습,” 『장신논단』 23 (2005), 12.

기도자(출 32장), 가수(신 32장) 또는 제의 인도자(신 33장)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제어는 모세와 관련된 해당 본문들과의 연관성을 통해 시편 90편의 위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²³⁾ 그것은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의 ‘축복’으로 인식되게 한다.²⁴⁾ 더 나아가 이러한 표제어는 ‘모세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제4권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 의도와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²⁵⁾

3.3.2. 부름과 고백 (1절후반절-2절)

시인은 <아도나이>(אֲדֹנָי)라는 칭호로 하나님을 부른다.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은 탄원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다.²⁶⁾ 하지만 <아도나이>라는 칭호가 탄원시의 시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²⁷⁾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

23) 13절은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소서’라고 외치는 모세의 외침(출 32:12)과 동일하다(아래 본문해설을 보라). 1절, 13절, 16절의 내용은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킨다(1c는 신 32:7; 13절은 신 32:26; 16절은 신 32:18). 이뿐 아니라 1-2절은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과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1b는 신 33:27; 2a는 신 33:15).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통해서도 연결된다(신 33:1).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9.

24)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9. 따라서 시편 90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으며, 17절의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기원이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복주심을 기원하는 모세의 축복으로 인식될 수 있다.

25) 이러한 특징은 ‘모세’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모세에 대한 언급이 제4권에서만 7회 나타나고, 나머지 책들에서는 단 한 번 나타난다(시 77:21). Jerome F. D. Creach, “The Shape of Book Four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Second Isa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0 (1998), 66.

26) W. P. Brown, 『시편』, 하경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85.

27) 시편 8편이 ‘야훼 우리 주여로 시작한다(2[1]절). 하지만 시편 8편은 찬양시로 분류된다. 탄원시에서 부름은 주로 ‘야훼’ 혹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예컨대, 시편 3편, 4편, 5편, 6편, 7편 등). 물론 시편 중간에서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시 35:17, 22; 38:10[9]; 38:23[22]; 39:8[7]; 44:24[23]; 51:17[15]; 55:10[9]; 57:10[9]; 59:12[11]; 62:13[12]; 71:5; 73:20; 79:12; 86:3-5, 8-9, 12, 15; 89:51; 109:21; 130:2-3; 140:8[7]; 141:8).

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²⁸⁾ 또한 이 칭호는 화자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종’인 화자에 대한 보호자이심을 드러낸다. 따라서 화자는 말 그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인 것이다.²⁹⁾ 시인은 이 부름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과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이러한 부르짖음에 응답되기를 바란다.

시인은 부름에 이어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한다. 하나는 “당신은 대대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은 문장구조상으로 보면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고백은 완료형의 <하아>(הָיָה) 동사가 사용된 동사문장이고, 두 번째 고백은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명사문장이다. 따라서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대대로 거처가 되셨다’는 ‘역사회고’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역사회고를 통한 확신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대대로 ‘거처’(<마온>, מוֹנֵה)가 되신 분이다.³⁰⁾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의 존재 근거가 되었음을 말한다.

28) H. J. Kraus, *BK*, 629.

29) 이것은 13절과 16절에 나타나는 ‘당신의 종들’이라는 호칭과 대응을 이룬다. 이러한 호칭의 대응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탄원이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도나아>, 즉 ‘주님’이신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어 종의 보호자로서 자신을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시편 86편에서 잘 드러나는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는 시인은(2절, 16절) 하나님을 줄곧 <아도나아>라고 부르며 기도한다(3-5, 8-9, 12, 15절에서 7회). 흥미롭게도 이 시편의 표제어는 시편 90편과 유사하게 <다윗의 기도>이다. 또한 시편 90편과 동일하게 ‘기도’(<테필라>)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 102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현진, “시편 제4집에서 본 102편 - 믿음으로 찾아 낸 허무한 인생과 충만한 인생의 균형,” 김이근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97-198.

30) 루터는 시편 90편에 대한 해설에서 히브리어 <마온>을 주목하고 이것이 시편 90편 진술의 특별한 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고전 3:17)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이곳’(즉, 자신의 백성 안)에 살셨다’(시 132:14)고 말하고 있는 반면(또한 시 76:3[2] 참조), 시편 90편에서는 하나님이 ‘거처’(Wohnung)라고 말하고 있다. 루터는 이 진술을 토대로 “우리가 집 주인이요 거주자이다”(wir seien die Hausherrn und Bewohner)라고 말한다. 하경택, “루터의 성경과 번역 - 시편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1:2 (2017), 82.

여기에 대응되고 있는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는 두 번째 고백이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동사가 나타나지 않는 명시문장이다. 이것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는 현재라는 사실을 함축한다.³¹⁾ 특별히 ‘산들이 생기기 전과 당신이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부터’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드러낸다.³²⁾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시편 90편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탄원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뢰의 고백이 부름과 함께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것이다.³³⁾ 이것은 탄식과 청원에 이어 나타나는 신뢰의 고백과 다른 차원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이 신뢰의 고백이 시편 90편의 분위기를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신뢰의 고백이 뒤이어 나오는 탄식의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는 청원의 토대가 된다. 달리 말하면, 시인은 시편 90편을 통해 이러한 고백이 현실 속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³⁵⁾

3.3.3. 탄식 1: ‘잠’이나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간’에 대한 탄식 (3-6절)

3-10절은 탄식으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3-6절은 ‘인간의 무상성’에 대한 탄식이다. 이 가운데 3절은 창세기 3장 19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한다. 여기에

31) A. Weiser, *The Psalms*, OTL (London: SCM Press, 1962), 597.

32) C. Westermann, “Ps 90,” *Ausgewählte Psalmen. Übersetzt und erklärt von Claus Westerman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116.

33) 탄원시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W. P. Brown, 『시편』, 85.

34) C. Westermann, “Ps 90,” 115.

35) F. L. Hossfeld/E. Zenger, *HTHKAT*, 610.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시편 73편의 흐름과 유사하다. 시편 73편에서도 시인의 근본사상이 첫머리에 시인의 확신으로서 나타나고 그것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시편 전체를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된다. A. Weiser, *OTL*, 596.

서 ‘먼지’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 <다카> (אֲדָמָה)는 ‘분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고운 가루로 부수어진 먼지와 같이 쉽게 부수어지고 남는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3절후반절은 전반절의 서술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돌아가라(וָשׁוּבוּ), 사람의 아들들아”라고 말씀하신다.³⁶⁾ 3절전반절과 후반절에서 모두 인간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미로 <슈브>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시인은 인간의 무상성을 시간의 관점에서 말한다(4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비교된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의 시간이 하루만큼 짧다. 이러한 진술은 후반절에서 좀 더 첨예화된다. 천년이라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하루보다도 짧아 밤의 한 ‘경점’(הַקְּטָנִים, 更點)³⁷⁾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천년과 하루의 비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 삶의 유한성이 비교 불가할 만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시 84:11; 욥 9:1; 뱀후 3:8 참조).

5-6절에서 인간의 삶은 ‘잠’과 ‘풀’에 비교된다. 이 두 가지 은유는 인간 삶의 무상성과 허무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시인은 인생이 아침에 깨어보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잠’이라고 말하고,³⁸⁾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간 삶의 이면에서는 홍수로 쓸려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 이것은 7-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상응하는 창조신학적 진술이다.

인간의 연약함과 삶의 유한함에 대한 시인의 탄식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36) 루터는 3절 후반절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베스터만도 그러한 루터의 해석 전통에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절과 같은 분위기로서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1), 159-160.

37) ‘경점’이란 조선 시대에, 북이나 징을 쳐서 알려 주던 시간을 말한다. 하룻밤의 시간을 다섯 경(更)으로 나누고, 한 경은 다섯 점(點)으로 나누어서, 매 경을 알릴 때에는 북을, 점을 알릴 때에는 징을 쳤다. 이러한 밤의 시간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여기에서 ‘잠’은 한 번 잠들면 깨어날 수 없는 ‘죽음의 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김정우, 『시편주석 III』, 33.

거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³⁹⁾ 이것은 구약성경이 도처에서 증언하는 지혜문학적 통찰이다(사 40:6이하; 욥 7:7-8; 14:1이하; 시 37:2; 58:8; 102:3-12; 103:15-16 등). 이러한 진술은 1-2절의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고백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상성에 대한 지혜문학적 통찰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나타날 때 단순한 탄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본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아닌 존재를 진노와 분노로 사라지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⁴⁰⁾ 이러한 시인의 문제제기는 이어지는 탄원(7-10절)과 첫 번째 청원(11-12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3.3.4. 탄식 2: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라지는 ‘우리’에 대한 탄식 (7-10절)

탄식부의 두 번째 단락인 7-1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탄식이 나타난다. 시인은 무상한 인간의 삶에 대한 다른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 앞에 표명된 탄식(3-6절)과 다른 모습을 인칭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절에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반면, 7-10절에서는 ‘우리’에게 ‘진노’로 대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강조된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종말을 맞이하고 놀라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다. 전반절과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진노’(רָעַם)와 ‘분노’(אֵפֶסֶת)가 반복되면서 강조된다. 8절에서는 인간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39) 바이저(A. Weiser)는 이러한 시인의 묘사가 침울한 비판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단순하고 냉철한 현실주의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A. Weiser, *OTL*, 598.

40) 이러한 시인의 탄식은 시편 8편에 대한 트라베스티(Travesti)로서 보잘 것 없는 인생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욥의 탄식(욥 7:17-19)과 비교된다. 하경택, 『욥기』,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121.

수 없음을 말한다. 인간들에게 감춰진 것도 그 분 앞에서는 숨김없이 드러난다(렘 16:17; 전 11:9; 12:14). 인생이 아무리 아름답고 단단해 보여도 숨 한 번 몰아쉬는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인생은 ‘한숨’(הַנְּשֻׁמָּה)과 같다(9절).⁴¹⁾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반응이다.⁴²⁾ 따라서 ‘돌아가라’는 명령은 교만한 인간에 대한 진노어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창 3:5; 11:4).⁴³⁾ 그러나 죄와 죽음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다.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잘못이다.⁴⁴⁾ 사람에게는 ‘숨겨진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숨겨진 것이 될 수 없다. 시편 51편에 있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4절)라는 고백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10절에는 유한한 인생의 길이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칠십으로 그리고 강건한 사람의 경우 팔십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사회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실제적인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⁴⁵⁾

41) 70인경은 이 ‘한숨’을 ‘거미’로 번역하고 ‘우리의 인생은 거미처럼 이야기를 뿜어내었다’라고 번역한다. 김정우, 『시편주석 III』, 35.

42) H. J. Kraus, *BK*, 631.

43) H. J. Kraus, *BK*, 631.

44) C. Westermann, “Ps 90,” 118.

45) 구약시대의 나이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120세의 수명을 넘긴다. 아브라함 175세 (창 25:7), 이스마엘 137세 (창 25:17), 이삭 180세 (창 35:28), 야곱 147세 (창 47:28), 요셉만 110세(창 50:22). 이 세 족장 못지않게 아론(123세, 민 33:39)과 모세(120세, 신 34:7)와 여호수아 (110세, 수 24:29)는 긴 수명을 누린다. 사사 중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불리던 엘리만 98세의 수명을 누린 것으로 나타난다(삼상 4:15). 왕정기에 사울(삼상 13:1)에 히브리어 원문에 나이가 빠져 있으나 70역본 가운데 몇몇은 30세로 읽는다. 여기에 사울의 통치연수를 40년이라 계산하는 행 13:21의 진술을 따르면 70세의 나이가 추산될 수 있다)과 다윗이 70세의 수명을 누린다. 솔로몬은 통치기간이 40년으로 보도되지만(왕상 11:42), 즉위시

따라서 70세는 현실적인 나이가 아니라 다윗이 누린 수명에 견줄 수 있는 이상적인 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⁶⁾ 우리가 이상적인 나이의 70년이나 80년의 긴 인생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수고와 고통 밖에 없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다. 그것도 ‘쏟살같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탄식에서 3-6절에서와는 다른 탄식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것은 3-6절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인간의 실존’(conditio humana)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아래 소멸하는 ‘우리’의 삶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⁷⁾ 여기에는 시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만을 강조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와 진노만이 아니라 인자와 성실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분노와 진노의 심판과 징벌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는 시인의 바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시인은 진노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인지하심을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를 촉발시키려 하는 것이다.⁴⁸⁾

나이가 불확실하므로 사망시의 나이를 알 수 없다. 유다왕들의 평균수명은 약 45세였다. 임효명, “구약의 노년,” 10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182.

46) 그런데 70년의 의미는 구약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간을 의미한다(렘 25:11-12; 29:10; 스 1:12; 7:5; 대하 36:21; 단 9:2; 또한 두로에 관하여 사 23:15, 17). U. Berges, “Die Knechte im Psalter,” 164.

47) T. Krüger, “Psalm 90 und die ‘Vergänglichkeit des Menschen,’” 202, 206. 이러한 인식과 상응하게 베스터만은 시편 90편에서 인간의 유한한 삶이 하나님의 창조(3-6절)와 역사(7-10절)라는 두 축 속에서 조망된다고 말한다. C. Westermann, “Ps 90,” 118.

48) R. Clifford, “Psalm 90: Wisdom Meditation or Communal Lament?” in P. W. Flint and P. D. Miller,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Leiden/Boston: Brill, 2005), 199. 클리포드는 인간의 무상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의 대조가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는 모티프로써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예, 시편 39편, 102편, 103편), 특별히 시편 39편과의 비교를 통해 시편 90편의 탄원시적 특징을 잘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B. L. Tanner u.a., *The Book of*

(1) 청원 1: 지혜의 마음 얻게 하소서 (11-12절)

첫 번째 청원인 11-12절은 시편 90편의 전환점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부름과 고백 이후 탄식에서 청원으로 그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먼저 “누가 당신의 분노의 능력을 알겠습니까?”라고 묻는다. 11절후 반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질문을 야훼 경외와 연결시킨다. 시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으로서 ‘누구도 모른다’의 답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인을 비롯한 자신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야훼 경외의 문제처럼 잘 이해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⁴⁹⁾

이어서 시인은 두 가지 사실을 청원한다(12절). 하나는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의 마음(לֵב חָכָמָה)’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 날들을 세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날들’을 인생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 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90편 전체의 맥락 가운데 이 청원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의 날들’은 시인을 비롯한 공동체에게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의 길이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요구가 후반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반복된다.⁵⁰⁾ 그것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다.

Psalms,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14), 694; U. Berges, “Die Knechte im Psalter: Ein Beitrag zu seiner Kompositionsgeschichte,” *Biblica* 81:2 (2000), 166-167.

49) 게스텐베르거는 이러한 수사적 질문들이 지혜를 겨루는 논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도전적 연결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한다(예컨대, 욥 25:3-4; 28:12, 20; 38:18, 33, 37; 41:2b, 3 등).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160.

50) 12절은 전반절과 후반절의 연결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독립적인

구약성경에서 마음은 ‘인지’와 ‘인식’, 더 나아가 ‘의지’의 기관으로서 나타난다.⁵¹⁾ 시인은 ‘지혜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들어와 자리 잡도록 해달라고 청원한다.⁵²⁾ 여기에서 ‘지혜’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지혜가 아니다. 자신들이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과 삶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가져오는 지혜이다.⁵³⁾

여기에서 시인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이나 불멸성을 위해 청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자신의 날들을 셀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청원한다. 이것은 인생 길이의 짧음을 몰라서 부르짖는 외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 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시인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시인의 부르짖음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탄식’과 ‘청원’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⁵⁴⁾ 11-12절은 형식적으로는 ‘청원’으로 분류되나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탄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1-12절은 시편 90편의 ‘돌쩌귀’이며 ‘중심부’라고 말할 수 있다.

두 개의 절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반절을 전반절의 목적절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든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알게 해 달라’는 것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달라’는 청원은 결국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51)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168-170.
- 52)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보> (בּוּ) 동사의 히필형이다.
- 53) R. Clifford, “Psalm 90,” 203; T. Krüger, “Psalm 90 und die ‘Vergänglichkeit des Menschen,’” 207.
- 54) 탄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베스터만의 분석에 의하면 3-6절은 ‘하나님-탄식’(Gott-Klage)으로, 7-10절은 ‘우리-탄식’(Wir-Klage)로 분류된다. 시편 90편에서는 ‘원수-탄식’(Feind-Klage)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시인의 원수와 동일시된다. 원수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11-12절에서 곤경의 종식에 대해 요청하지 않고 묘사된 곤경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요구한다.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4.

(2) 청원 2: 돌이키소서 (13절)

13절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강조된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야훼 신명이 처음 나타나고, “언제까지”라는 탄식의 의문사가 사용되고 있다.⁵⁵⁾ 따라서 1-12절은 이곳의 청원을 위한 준비단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⁵⁶⁾ 시인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청원을 위한 논리적인 토대로서 부름과 고백과 탄식을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청원을 들으시도록 지금까지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이 야훼께 청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돌이키소서”(〈슈바, שׁוּבָה〉)이다.⁵⁷⁾ 〈슈브〉의 의미는 다양하다.⁵⁸⁾ 그러나 그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돌이킴’이다. 이러한 청원은 후반절의 청원을 통해 강조된다. “당신의 종들’에 관하여 ‘뜻을 돌이키소서’(〈한나헴, וְהִנָּחֵם〉).⁵⁹⁾” 이러한 시인의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동일한 두 개의 동사를 통해 청원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⁶⁰⁾

시편 90:13	출 32:12b
שׁוּבָה יְהוָה עַד־מָתַי וְהִנָּחֵם עַל־עֲבֹרָיךָ	שׁוּב מִחֲרוֹן אַפֶּיךָ וְהִנָּחֵם עַל־הָרָעָה לְעַמֶּךָ

55)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6.

56) B. L. Tanner, *NICOT*, 695.

57) 이것은 ‘강조형태’의 명령형으로서 분위기를 살피 번역하면 ‘제발 돌이키소서’라고 옮길 수 있겠다.

58) 그 의미는 ‘회개’, ‘귀환’, ‘운명의 전환’, ‘하나님을 떠남’ 등 다양하다. R. Rendtorff, 『구약정경신학』, 하경택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414-417, 508-510; J. A. Soggin, “שׁוּב”, in: *THAT II*, 884-891. H.-J. Fabry/A. Graupner, “שׁוּב”, in: *TbWAT VII*, 1118-1166.

59) 여기에 사용된 <나함>동사의 니팔형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개역개정역에서는 각각 ‘한탄하다’(창 6:6); ‘후회하다’(삼상 15:11); ‘회개하다’(욥 42:6); ‘뜻을 돌이키다’(욘 3:9-10) 등으로 번역되었다.

60) 이러한 유사성은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를 갖도록 하는 본문상호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첫째로, 전반절의 ‘돌이키소서’라는 청원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킴인가? 시편 90편에서는 ‘무엇으로부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분노로부터’(אֲנִי מִן־אֵשׁ)의 돌이킴이다. 이것은 시편 90편의 시인이 7-10 절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처럼 90편의 시인도 동일한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야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후반절에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도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시편 90편에서는 ‘당신의 종들’이라고만 말하고 있으나,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낱말은 <라이>(רָעָה)로서 ‘악’, ‘재앙’, ‘화(禍)’ ‘불행’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⁶¹⁾ 따라서 ‘뜻을 돌이킴’도 당신의 종들에게 ‘나쁜 것’을 내리시려는 뜻을 거두시기를 간청하고 있다(아래 15절을 보라).

이러한 시인의 청원은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를 본받고 있다(또한 애 5:19-22 참조). 진노로부터 돌이키시고 재앙으로부터 회복시켜 달라는 청원인 것이다.⁶²⁾ 특별히 13절에 언급된 ‘당신의 종들’이라는 명칭은 시편 90편에 대한 해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편에서 ‘종’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 명칭이었다(시 18:1; 36:1; 78:70; 132:10; 144:10). 하지만 이 명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된다(시 34:23; 69:37; 79:2, 10; 89:51; 90:13, 16; 102:15, 29; 105:25; 113:1; 123:2; 134:1; 135:1, 14).⁶³⁾ 시편 90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종들’은 다윗

61) W. Gesenius,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이정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766.

62) 이러한 ‘돌이킴’의 의미는 <나함> 동사와 <슈브> 동사의 결합이 유일하게 한 번 더 나타나는 출애굽기 13: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63) 이러한 의미의 확대는 ‘다윗 언약의 확장’으로서 나타나는 ‘왕권의 민주화’(Demokratisierung des Königtums)처럼(사 55:3), ‘종됨의 민주화’(Demokratisierung des Knecht-Seins)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U. Berges, “Die Knechte im Psalter,” 164.

왕조의 멸망을 경험한 포로기 또는 포로후기 초의(exilisch-frünachexilisch) 공동체의 일원들로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⁴⁾ 시편 90편의 시인은 모세처럼 야훼의 종들의 대표자로서 청원한다. 그는 다윗 이전의 인물인 광야시대의 인도자 모세의 모범을 따라간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다윗왕조의 재건에 초점이 있지 않고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지향한다.⁶⁵⁾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인은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3절)의 <슈브>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위해 사용한다. <슈부> (שׁוּבוּ)에 맞서 <슈바> (שׁוּבוּ)라고 말하고 있다.

(3) 청원 3: 기쁨의 날들을 주소서 (14-16절)

14-16절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된다. 14절에서 시인은 “아침에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청원한다. 진노와 분노만을 말했던 이전 단락과는 달리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시인은 ‘인자하심’(<헤세드>, חֶסֶד)을 언급한다.⁶⁶⁾ 그것도 아침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다. ‘아침’이 무상함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바뀐다(6절과 14절).⁶⁷⁾ 이것은 지금까지 진노와 분노로 서술되었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다른 측면의 모습이다. 야훼의 인자하심이 임하면 종들의 모든 날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64) 시편에서 이 용어는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리키는 집단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사 54:17). 이와 같은 현상은 이사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U. Berges, “Die Knechte im Psalter,” 163-164.

65) U. Berges, “Die Knechte im Psalter,” 176.

66) 바이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이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삶의 지주요 본질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그것에 따라 자신의 날들을 세어야 하는 표준을 제시한다.” A. Weiser, *The Psalms*, 602.

67) F. L. Hossfeld/E. Zenger, *HTHKAT*, 607.

15절에서 시인은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청원을 이어간다. 그는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나쁜 것(<리아>, רָעָה)을 보았던 연수’대로 자신들을 즐겁게 해달라고 청원한다.⁶⁸⁾ 이것은 매우 대담한 청원이다. 시인은 여기에서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날수만큼 자신들을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⁶⁹⁾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청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청원이다.⁷⁰⁾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보여 달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각각 ‘당신의 종들’(עַבְדֵיךָ)과 ‘그들의 자손들’(בְּנֵי אֱוֹנֵיךָ)에 보여주기를 청원한다. 이것은 3절에 언급된 ‘사람의 아들들’(בְּנֵי אָדָם)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는 인생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야훼의 일과 영광은 계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종들과 그들의 자손의 연속을 통해서 가능하다.⁷¹⁾ 시인은 종들의 세대 연속을 통해서 인생의 유한성이 극복되기를 소망한다.

(4) 청원 4: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굳게 세우소서 (17절)

17절이 시편 90편의 마지막 절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68) 이러한 언급에는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겪어야만 했던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이해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다. 이러한 이해는 시편 90편의 저작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이후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된다.

69) 이시야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당한 고난은 야훼께서 그들에게 죄 값을 두 배로 치르게 하신 것(사 40:1-2)이라는 인식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다.

70) 베르게스(U. Berges)는 ‘종됨’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말한다(시 143:12; 또한 116:16 참조). U. Berges, “Die Knechte im Psalter,” 162.

71)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12.

있다. 먼저 세 개의 콜론(Trikolon)으로 구성된 절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⁷²⁾ 또한 17절은 시편 90편의 시작부(1-2절)와 연결성 속에서 시편 90편의 종결부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서두와 종결의 감싸기 구조에 관하여 위의 구조분석을 참조하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서두와 종결의 두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⁷³⁾

17절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3인칭으로 불린다. 시인은 하나님을 ‘주 우리 하나님’(<아도나이 엘로헤누>, אֱלֹהֵינוּ יְיָ)이라고 부르며, 그의 ‘아름다움’이 자신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이것은 형식과 내용 모두를 고려할 때 ‘축복문’이라고 불릴만하다.⁷⁴⁾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노암> (נוֹאם)은 ‘기쁨’, ‘친절’, ‘은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⁷⁵⁾ 따라서 이것은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친절한 은혜의 행동’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경험한다.⁷⁶⁾ 두 번째 콜론과 세 번째 콜론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2인칭 명령형 형태로 청원한다.⁷⁷⁾ 그것은 ‘우리 손으로 한 일을 굳게 세워 주소서’라는 것이다.⁷⁸⁾ 특별히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쿤> (כּוּן)동사는 바로 앞 시편에 나오는 ‘창조’(시 89:2)와 ‘언약’(시 89:4)에 관련된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서 ‘이미 창조한 것과 시작한 것을 다지고 세울 때’ 사용된다.⁷⁹⁾

72) 어떤 절이 세 개의 콜론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어떤 단락이 종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고대 히브리 시작 기법이다.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4.

73)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시편 90편에서 시작과 전환점과 끝에 등장하여 시편의 흐름을 주도한다: 엘로힘(1, 17절), 엘(2절), 아도나이(1, 17절), 야훼(13절). 김정우, 『시편주석 III』, 25쪽.

74) 여기에서 신명기 33장의 ‘축복의 중재자’ 모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75) W. Gesenius,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 513.

76) 클리포드는 <노암 아도나이> (אֱלֹהֵינוּ נֹאֵם)가 1절의 <아도나이 마온> (מִיְיָ אֱלֹהֵינוּ)을 뒤집은 표현으로서 야훼의 거처되심을 회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R. Clifford, “Psalm 90: Wisdom Meditation or Communal Lament?”, 198, 204.

77) 두 번째 콜론에서는 ‘우리를 위해’라는 어구가 있고, 세 번째 콜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78) 이와 유사하게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표현이 신명기에 자주 나타난다(2:7; 14:29; 24:19; 28:12).

79) 김정우, 『시편주석 III』, 39.

이것은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열매를 맺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⁸⁰⁾ 여기에는 자신들이 일상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시인의 청원에서 일상의 삶에 대한 긍정을 발견한다. 그는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성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구한다. 시인은 거처가 되시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하여 일상적인 일에 대한 돌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포물선을 그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한다. 그는 인간의 무상성을 말하면서도 인간이 삶 속에서 행하고 작용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통합되기를 희망한다.⁸¹⁾ 이러한 시인의 고백과 청원을 통해 ‘장엄한 것’(das Majestätische)과 ‘일상적인 것’(das Alltägliche)이 하나가 된다.⁸²⁾

3.4. 내용요약과 중심주제

시편 90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기초한 탄식과 청원으로 이루어진 기도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주님이신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다”는 고백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입니다”는 고백이 시인의 탄식과 청원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시인의 탄식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그는 ‘잠’이나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간’에 대한 탄식(3-6절)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라지는 ‘우리’에 대한 탄식(7-10절)을 이어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유한한 인간의 실존이 묘사되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사라지는 ‘우리’가 서술된다. 이 두 가지 탄식은 단순한 서술의 차원을 넘는 질문과 항변의 분위기가 녹아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80) 태너(B. L. Tanner)는 시편 90편의 시인이 이사야 65:17-25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B. L. Tanner, *NICOT*, 696.

81)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6.

82) C. Westermann, “Ps 90,” 120.

첫 번째 청원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11-12절). 시인은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알게 하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청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신의 날들이 얼마나 될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는 시인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시인의 요청이다. 이러한 시인의 요구와 요청은 13절의 청원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다. 종들에 대한 ‘진노’와 그들에 대한 ‘나쁜 것’에서 돌이키시는 것이다. 이러한 돌이킴을 통해서 생겨날 일들이 이어지는 청원에서 묘사된다(14-16절).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얻게 될 기쁨의 날들을 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은 곤고한 날수대로와 나쁜 것을 보았던 연수대로 기쁨의 날들을 달라는 대담한 요청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종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청원(17절)에서 시인은 자신들이 한 일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구한다. 일상의 삶을 긍정하고 일상 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것이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나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준다.⁸³⁾ 그러나 이것을 통해 시편 90편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통한 기쁨의 날들의 회복’이다. 이러한 시인의 청원에는 회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성의 대조를 바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한다. 인간의

83) H. J. Kraus, *BK*, 632-633. 크라우스는 시편 90편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하나님은 선재하시는 분이시다. 2)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3)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 안에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4)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시다. 5)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 진노의 힘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시편 90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은 먼지로 되돌아간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재가 되어 사라진다(창 18:27). 2) 인간은 날아가는 존재와 같이 쉽게 사라진다; 그의 삶은 풀과 같다. 3) 인간의 모든 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의 모든 호화로운 기만이다. 4)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는 죄인이다. 5) 인간은 분별력이 없어 지혜의 가르침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한 청원으로 인도되기를 원한다.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는 행위회복관계의 일치성에 대한 기계적인 법칙에 묶여있지 않다. 시인은 거처가 되시며 영원히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호소한다. 이러한 시인의 탄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4. 다른 본문과의 관련성: 시편집 안에서 90편의 의미

시편집에서 차지하는 시편 90편의 의미는 시편집의 제4-5권이 제1-3권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럴드 윌슨(G. H. Wilson)의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⁸⁴⁾ 우선 시편 90편은 제4권을 여는 시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다윗 왕권’의 몰락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 탄원하는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윗 왕정의 사라짐의 위기 속에서 기대되는 회복은 단순히 다윗 왕정의 재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였다. 이러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모세였다.⁸⁵⁾ 그는 출애굽을 통한 언약공동체의 출현을 이끌었던 사람이며,

84) 제럴드 윌슨(G. H. Wilson)은 제1-3권의 중심주제가 되는 다윗왕정의 실패에 대한 문제제기에 제4권이 응답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제4권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한다. 1)야훼의 왕이시다. 2) 그분은 왕정이 수립되기 오래전부터(즉, 모세시대에서부터)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3) 그분은 왕정이 사라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4)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러면서 그는 제4권이 시편집의 최종 형태 안에서 편집적 “중심”(editorial center)으로 기능한다 평가한다. G. H. Wilson,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 DS 76 (Chico: Scholars Press, 1985), 215.

85) 제4권은 모세로 시작하여 모세로 끝나는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4권은 ‘모세의 기도리는 표제어를 가진 90편으로 시작하여 모세가 중심인물로 부각되는 105-106편의 역사시편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 193. 이러한 제4권은 ‘토라’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박경철,

신앙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 사람이었다(출 32-34장; 민 13-14장). 제4-5권에 반영된 포로기의 상황은 모세의 영도 하에 있었던 광야시대와 비교된다.⁸⁶⁾ 그래서 제4권에는 다윗 왕정이 아니라 야훼의 왕되심과 통치를 강조하는 ‘야훼-제왕시’가 집중되어 나타난다.⁸⁷⁾

그러나 제4권 안에서 시편 90편의 위치는 이어지는 시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약속되고 있는 시편 91편은 시편 90편의 탄식과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등장하는 시편 92편은 감사시편이다. 따라서 세 시편은 탄원-하나님의 응답-감사의 구도 속에서 연결된다.⁸⁸⁾ 이뿐 아니라 제4권의 처음과 마지막의 구성도 질문과 응답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바라는 시인의 청원(13절)은 시편 106편에서 응답된 형태로 나타난다. 시편 106편은 45절에서 90편 13절에 사용된 <나함> (□□) 동사의 니팔형을 통해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증언한다.⁸⁹⁾

또한 시편 90편의 특징적인 요소인 ‘종들’이라는 표현은 4권과 5권에

“한 권으로 읽는 시편.”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3-44.

86) U. Berges, 158. 제4권에는 모세 이외에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등장한다. 아브라함(105:6, 9, 42), 이삭(105:9), 야곱(94:7; 105:6, 10), 요셉(105:17), 아론(99:26; 105:26; 106:16), 비느하스(106:30), 사무엘(99:6) 등의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은 모두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주인공들이다. 왕대일, 『토라로 토다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198.

87) 따라서 시편 90편은 야훼 제왕시(93-100편)의 출현을 위한 ‘전주곡’으로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08.

88) F. L. Hossfeld/E. Zenger, *HTbKAT*, 613. 더 상세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시편의 연결점들이 고찰된다. 90:5-6의 마른 풀에 대한 은유는 92:13-16의 열매맺는 종려나무와 높이 번성하며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조된다. 90:1의 신뢰의 고백은 91편과 92편에서 여러 차례 암시되고 변형된다. 90:13-17은 부분적으로 92편에서 문자 그대로 언급된다(90:14과 92:3, 5). 또한 90:16의 청원은 92:5에서 응답된다. 90:17b의 종결 청원은 92:5과 대조된다.

89) 모네트는 시편 90편과 106편의 관계를 ‘간청’(plea)과 ‘응답’(response)의 관계로 파악한다. Krista J. Mournet, “Moses and the Psalms: the Significance of Psalms 90 and 106 within Book IV,” *Conversations with the Biblical World* 31 (2011), 70-73.

집중되어 나타난다.⁹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의 종결부에(시 89:51[50]) 나타나고, 시 90편과 연관 있는 시편(시 102:15, 29)과 역사시편에(105:24), 그리고 유월절(이집트)-할렐의 시작부(시 113:1)와 마지막 순례시(시 134:3)에 나타난다. 이러한 ‘종들’은 시편집 제4권의 편집을 책임진 사람들의 그룹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종들’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⁹¹⁾ 이러한 ‘종들’에 대한 언급에 걸맞게 제1-3권의 맺음말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모든 백성’(כָּל־הָעָ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시 106:48).

5. 나가는 말

시편 90편은 표제어를 통해서 청중과 독자들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⁹²⁾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자인 시인이 기도의 모범자로서 하나님께 말을 건다. 개인이면서 집단적인 독자들은 시인의 모범을 따라 모세의 기도를 하도록 요청받는다. 왕대일 교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토라를 전달받아 백성들을 가르쳤던 모세처럼 교단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했다.⁹³⁾ 또한 그는 모세처럼 노래하고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여전히 모세를 필요로 한다. 다윗 왕정이 사라진 시대의 혼란함처럼 광야시대

90) U. Berges, “Die Knechte im Psalter,” 162. ‘종들’이라는 표현이 1-3권에도 등장하지만 이것은 후대의 편집이 가해진 본문들로 평가된다(시 34:23[22]; 69:37[36]; 79:2, 10).

91) 종들에 관한 마지막 언급(시 135:14)에서 모세의 말(신 32:36)이 인용된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92) B. L. Tanner, *NICOT*, 696.

93) 이 같은 사실은 그의 주된 연구영역이 ‘토라’였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동저자, 『(왕대일 교수의) 신명기 강: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동저자, 『엑소도스,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기까지: 왕대일의 출애굽기 강해』, (서울: KMC, 2015; 동저자,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상: 창세기 1-11장의 물음·부름·푸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외 다수.

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교사와 설교자로서만이 아니라 시인이요, 기도자였던 모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생을 살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모세와 같이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슈바>, 그리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굳게 세우소서.”

<주제어>

시편 90편, <슈브>, <슈바>, 공동체 탄원시, 하나님의 영원성, 인간의 무상성

<Keywords>

Psalm 90, <shub>, <shuba>, community lament, eternity of God, transiency of man

* 접수일 2019년 1월 25일, 수정일 2019년 2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9년 3월 19일

참고문헌

-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 박정철, “한 권으로 읽는 시편,”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1-57.
-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권으로 읽기 - 토라로 토다를』, 구약사상문고 6,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왕대일,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왕대일, 『(왕대일 교수의) 신명기 강의: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왕대일, 『민수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왕대일, 『엑소도스,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기까지: 왕대일의 출애굽기 강해』, 서울: KMC, 2015.
- 왕대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창세기 1-11장의 물음·부름·푸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임효명, “구약의 노년,” 「10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6), 181-188.
- 정현진, “시편 제4집에서 본 102편 - 믿음으로 찾아 낸 허무한 인생과 충만한 인생의 균형,” 김이곤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편집위원회,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73-216.
- 하경택, “구약성서의 ‘예언자’를 통해서 본 ‘설교자’의 모습,” 「장신논단」 23 (2005), 11-38.
- 하경택, “루터의 성경과 번역 - 시편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11:2 (2017), 63-90.
- 하경택, 『욥기』, 한국장로교총회창립 100주년기념 표준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 Berges, U., “Die Knechte im Psalter: Ein Beitrag zu seiner Kompositionsgeschichte,” *Biblica* 81:2 (2000), 153-178.

- Brown, W. P., 『시편』, 하경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Clifford, R., “Psalm 90: Wisdom Meditation or Communal Lament?” In Flint, P. W. and Miller, P. D.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n*, Leiden/Boston: Brill, 2005.
- Creach, Jerome F. D., “The Shape of Book Four of the Psalter and the Shape of Second Isa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80 (1998), 63-76.
- Fabry, H.-J./Graupner, A., “שׁוֹב”, *ThWAT VII*, 1118-1166.
- Forster, C.,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Zürich: Pan, 2000.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1.
- Gesenius, W., 『히브리어 아랍어 사전』, 이정희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Hossfeld, F. L./Zenger, E.,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Herder, 2000.
- Janowski, B.,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 Kraus, H. J., *Psalmen 64-100*,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 Krüger, T., “Psalm 90 und die ‘Vergänglichkeit des Menschen,’” *Biblica* 75:2 (1994), 191-219.
- Mournet, J., “Moses and the Psalms: the Significance of Psalms 90 and 106 within Book IV,” *Conversations with the Biblical World* 31 (2011), 66-79.
- Rendtorff, R., 『구약정경신학』, 하경택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 Seybold, K., *Die Psalmen*, HAT I/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Soggin, J. A., “שׁוֹב”, *THAT II*, 884-891.
- Tanner, B. L. u.a., *The Book of Psalms*, NICOT,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14.
- Weiser, A., *The Psalms*, OTL, London: SCM Press, 1962.
- Westermann, C., *Ausgewählt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 Wilson, G. H.,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 DS 76, Chico: Scholars Press, 1985.

<초록>

<슈부>(שוֹבֵב) vs <슈바>(שוֹבֵבָה)

-시편 90편의 주석과 이해-

하경택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시편 90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기초한 탄식과 청원으로 이루어진 기도시’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다”는 것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입니다”는 고백이 시인의 탄식과 청원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시인의 탄식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 그는 ‘잠’이나 ‘풀’과 같이 사라지는 ‘인간’에 대한 탄식(3-6절)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사라지는 ‘우리’에 대한 탄식(7-10절)을 이어간다. 이 두 가지 탄식은 서술의 차원을 넘어 질문과 항변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분위기는 첫 번째 청원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11-12절). 시인은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알게 하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청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신의 날들이 얼마나 될지를 아는 지혜를 달라는 시인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시인의 요청이다. 이러한 시인의 요구와 요청은 13절의 청원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다. 종들에 대한 ‘진노’와 그들에 대한 ‘나쁜 것’에서 돌이키시는 것이다. 이러한 돌이킴을 통해서 생겨날 일들이 이어지는 청원에서 묘사된다(14-16절). 마지막 청원(17절)에서 시인은 자신들이 한 일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구한다. 시편 90편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통한 기쁨의 날들의 회복’이다. 이러한 시인의 청원에는 회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성의 대조를 바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

하심에 호소한다. 시인은 하나님의 <슈부> 명령에 <슈바>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탄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Abstract>

<Shubu> vs <Shuba>: Exegesis and Understanding of the Psalm 90

Prof. Kyung-Taek Ha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University)

Psalm 90 is summarized as ‘a prayer psalm consisting of laments and petitions based on confession to God’. The confession that God is “a dwelling place for u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You are God from eternity to eternity”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the poet’s laments and petitions. The poet’s laments appear in two dimensions. On the one hand, he laments about “man” disappearing like “sleep” or “grass” (vv. 3-6) and, on the other hand, he laments about “us” disappearing because of God’s wrath (vv. 7-10). These two laments form a question. This atmosphere is more explicit in the first petition (vv. 11-12). The poet calls on us to “count our days” and get the “heart of wisdom.” But this is a poet’s call to ask for wisdom to know how much of his days are in the wrath of God, and to know God’s will in God’s creation and history. The demands and requests of the poet are clearly revealed through the petitions in verse 13. It is God’s return. It is to turn from the ‘wrath’ of the servants and the ‘bad thing’ about them. What will happen through this change is described in the following petition (vv. 14-16). In the last petition (v. 17), the poet asks for the works of their hands to be firmly established. What does Psalm 90 stand for? It is the restoration of the days of joy through the lovingkindness of God. But repentance does not appear explicitly

in the poet's petition. He appeals to the fullness of God's love based on the contrast between God's eternity and man's transiency. The poet confronts the command <Shubu> of God with <Shuba>.” The lament and prayer of the poet are the privilege of the man of God, the servant of God, and they are the relationship with God that the children of God must have.